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교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 시노드를 한다고 하던데, 시노드가 뭔가요? 신자들 각 개인 에게도 중요한 회의인가요?

교황님께서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이하 시노드)를 소집하시어, 전 세계 가톨릭교회에서 시노드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서울대교구에서도 지난 10월 17일 개막 미사를 기점으로 교구 단계 시노드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도대체 시노드가 뭘까요? 이번 시간에는 시노드가 무엇이며, 왜 중요하고, 또 우리 각자의 신앙 생활에 시노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 안에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권한과 역할을 갖고 계신 분이 교황님과 전 세계의 주교님들이십니다. 초기 교회 때부터 교황님과 주교단이 함께 참석하여 그리스도교 신앙과 생활에 관한 중요한 원칙을 세웠던 회의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공의회’와 ‘시노드’입니다.

공의회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노드(synodus) 역시 교회에서 중요한 회의를 지칭하기 위해 오랫동안 함께 쓰여왔습니다. 다만, 지금의 시노드 회의 제도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5)에서 확립되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전 세계 주교단이 모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 세계 주교단을 대표하는 대의원 주교들이 참석하여 교황님을 도와 중요 현안에 대한 자문을 드리는 회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여 확립된 제도입니다. 시노드는 교황님이 제시하는 주요 현안에 대하여 대의원 주교단이 교황님께 자문을 통해 건의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시노드는 총 15차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노드는 기존의 시노드 개최 방식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를 통해 기존에 전 세계 대의원 주교단만 참여해 왔던 시노드의 진행 방식을 변경하셨습니다. 우선 시노드를 준비단계, 거행단계, 이행단계로 진행하도록 하였고, ‘전문가, 참관인, 형제 대표, 특별 초청 참가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새로 변경된 준비단계에는 특별히 하느님 백성의 협의 과정을 포함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황님과 주교단의 회의인 시노드가 하느님 백성 전체, 곧 평신도, 사목자, 로마의 주교가 함께하는 여정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노드가 하느님 백성 전체가 교회의 중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내고 자문에 함께 참여하는 회의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이번 시노드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특별한 지향입니다.

이에 따라 개별 교구에서 먼저 하느님 백성의 자문을 모으는 과정이 더욱 강조됩니다. 이 과정은 교구 내 평신도, 수도자, 사도직 단체 활동가를 비롯하여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은 물론, 그동안 교회가 무관심했던 이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하느님의 백성과 시노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하느님께서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발언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을 거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노드의 변화는 젊은이, 신앙, 성소적 식별을 다룬 제15차 시노드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과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시노드에 참석시키는 새로운 방식의 시노드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6차 시노드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교구별 준비단계에서 여러분이 속한 각 성당에서 단체별, 모임별로도 시노드 준비 모임을 할 예정이니만큼, 여러분 각자가 이번 ‘함께 걷는 여정’인 시노드에 동참하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노드를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